

# 아이 키우기 좋은 무주군

### 군, 영아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민간 어린이집 월 1만원 추가 지급

무주군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보육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한 해 영·유아 보육에 48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가정양육 중인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정양육 시 지정기관을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를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지정 기관인 관내 어린이집에서도 경력직 보육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통해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무주군은 2018년 초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추가 반 증설을 승인 받았다.

이외에도 도비 지원을 받아 정부 미지원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 월 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최동철 드림스타트 담당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며 "주민들과 눈높이를 맞춘 영·유아 보육 서비스가 저 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 집은 현재 10곳으로 413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다. 보육품질과 표준화에 관한 평가 인증률(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 주관)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방침으로 상반기에는 직무교육을, 하반기에는 선진지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애반딧불이 유충·다슬기 방사

무주군이 반딧불이 개체 수 확대와 서식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달 28일 반딧불이 천연기념물보호지역과 반딧불이 연구소 인근 반딧불이 복원지역(반딧불이 관찰지)에 애반딧불이 유충 5천 마리와 다슬기 40kg을 방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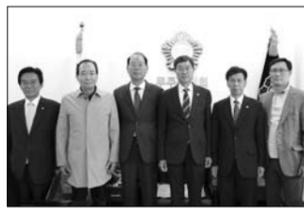
이날 행사는 반딧불이 개체수를 늘리고 애반딧불이 유충의 먹이인 다슬기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다슬기 불법채취 행

위를 막는 캠페인도 함께 펼쳐 눈길을 끌었다.

군에서는 반딧불이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개체 수 증가를 위한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반딧불이 지킴이 봉사단(반딧불이 출현지 등에 거주하고 있는 322명의 주민들로 구성)이 발족돼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제22회 무주반딧불대표축제가 오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매아리



### 무주군의회, 결산검사 돌입

무주군의회는 3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수행 할 5명의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돌입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이대석 의원이 위촉되었으며, 결산검사 위원들은 관련 분야에 넓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직 도의원·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지난달 22일에 2018년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교육에 참석하여 결산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고, 이를 토대로 정교하고 체계적인 결산검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유승열 의장은 "무주군의 재정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풍부한 전문지식으로 세밀하고 꼼꼼하게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대석 대표위원은 "군민의 혈세가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선심성으로 낭비된 것은 없는지 세부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효과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결산개요,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다목적 중소 농기계 285대 보조 지원

### 농기당 최대 400만원 50% 이내에서

장수군은 농업의 생산비 절감과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영농기계화에 적극 나선다.

군은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부녀자의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목적관리기, 농용운반차, 비료(퇴비)살포기, 전동가위와 21종 등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285대를 공급 지원한다.

공급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

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 중 800만원 이하 기종이 해당된다.

올해 지원하는 농기계는 농촌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하고 논·밭작물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형 농기계를 농기당 최대 400만원, 50%이내로 보조 지원한다.

또한 대상 기종 가운데 농가가 제조사를 자유롭게 선택해 구입할 수 있

는 농가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며 상반기 중 공급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지원 대상 농가로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은 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군에서 현재 장수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산서, 번암, 장계, 천천임대농기계사업소를 운영 중이며, 농용굴삭기, 퇴비살포기 등 80종 627대 농기계를 연중 임대하고 있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향토 교육자료 '진안 보물찾기' 제작

진안군은 3일 청소년들의 애함심 고취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자원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청소년 맞춤형 향토 교육자료인 '진안 보물찾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진안 보물찾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학부모가 등장해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들에 대해 조목조목 풀어 이야기해주는 형식의 책으로 삽화 또는 사진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이야기 전개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구성했다.

또한 향토인재 발굴과 애함심을 키울 수 있도록 진안의 특성과 자원을 살려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했으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이 읽기에 도 진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편집했다.

군은 관내 교육청과 학교,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 등 약 90개소에 6,000부를 배부해 학생들의 지역 사회조사관찰을 통한 탐구능력 향상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보물찾기

## 장수군, 빈집 활용 반값 임대 희망자 모집

장수군이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 참여 빈집 소유자를 모집한다.

장수군은 "올해 총 3600만원의 사업

비를 투입해 장기간 방치돼 경관을 해치거나 범죄 및 방화 등의 우려가 높은 빈집을 활용하여 임대하는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을 신청한 빈집소유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아 빈집을 보수하고, 임주자에게 최대 5년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하여야 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 "경청·소통하는 지역의 일꾼 될 것"

### 백경태 무주군수 예비후보

"경청과 소통으로 새로운 무주를 만들기 위해 무주군수선거에 출마합니다"

지난 1일 후보 등록을 마친 백경태 무주군수 예비후보(57·더불어민주당·사진)가 3일 무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행보에 돌입했다.

"군민들이 보내준 성원에 힘입어 8년간의 도의회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로 시작한 백 예비후보는 "이제 군민들의 앞

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무주의 일꾼이 되고자 한다"라고 출마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구감소와 정책 부재, 관광인프라 부족, 청년실업, 농업소득 감소 등으로 무주의 현실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65세 이상 노인 6세 이하 아동대상 무상의료 서비스, 농산물 유통판매 시스템, 통합관광단지 개발, 청년창업과 일자리 지원 전담 TF팀 구성 등을 세부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앞으로도 언제나 낮은 곳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군민과 함께 할 것이다"며 "새로운 정책과 비전으로 미래를 함께 열어갈, 모든 것이 준비된 나를 뽑아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를 농업관광도시로 만들겠다"

### 양성빈, 장수군수 출마 선언

양성빈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예비후보(사진)가 지난 2일 장수군청 브리핑룸에서 장수군수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장수군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처해있으며, 새로운 장수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농업부터 교육까지 전 영역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론(정치학 박사수료)과 실천(국회의원 비서관, 도의원)을 겸비한 정치전문가로서 고향 장수를 바로 세우는데 본인의 소명이라 생각했다며,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장수군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63%로 장수군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히면서, 장수를 팔아 버리겠다라는 슬로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또한 농업관광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농업을 관광과 접목시켜 장수를 관광의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한 군민의 고통을 함께 지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동안 지게를 지고 거리운동을 하겠다는 이색 퍼포먼스를 준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의회 산건위장에 김광수 의원

진안군의회(의장 박병석)는 광역의원 출마로 인해 공석이 된 산업건설 위원장에 김광수 의원(사진)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3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의 공석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했으며 교황선출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김광수 의원이 신임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광수 신임 산업건설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남은 임기 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